'청년 헤겔파'의 사상적 연원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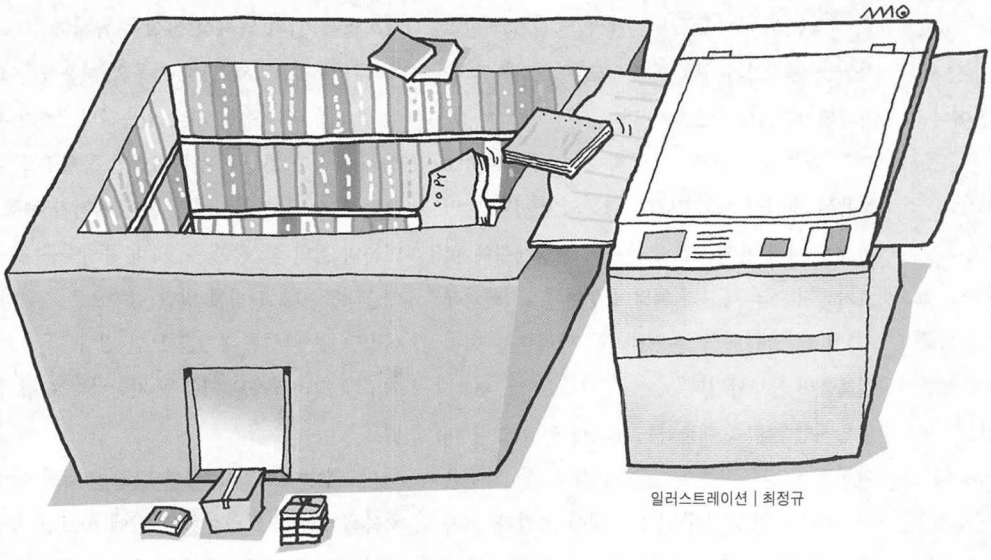
서가가 '자료창고'가 된 이유

정문길 |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학교에 있는 내 연구실은 여느 교수의 연구실과 다름없이 사방이 책으로 포위돼 있다. 하기야 30여년간의 교직생활에서 이 정도의 책도 갖추지 않고 연구생활을 할 수 있을소냐 하면 그만이지만, 책꽂이 곳곳에 끼어 있는 책들은 나에게는 그런대로 저마다의 역사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책들이 복사한 자료거나 1980년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된 해적판 복사본이기에 귀중본이나 희귀본은 고사하고 초간본조차 이것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서재지만, 내게는 한권 한권의 책이나 자료가 지난날의 인생살이와 맞물려 손때 묻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삶의 한 구비에 임박해, 지난 여름 넘쳐나는 책들을 정리하고 또 부분적으로 책을 '방출'하기 위해 연구실을 정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묵은 살림을 처리하듯 무엇이건 모질게 내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그 어느 책 하나 쉽사리 내팽개치지 못한 채 이들 한권 한권의 책과 관련된 지난날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헛물을 켜게 마련이었다. 하기야 이제 몇 년 지나면 도래할 정년에는 어쨌든 이들을 억지로라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을테니 다시 그때를 기약하면서 손을 흔들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19세기 전반의 독일 사상사를 공부하는 내 연구실에 이와 관련된 책이 대종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외' 문제의 연구에 매달려 있던 나는 1840년대 '청년 마르크스'의 저작을 탐독하면서 19세기 전반의 독일 사상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그러나 이 분야는 자료의 절대적 빈곤으로 국내에서는 그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1년간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체류는 자료에 대한 내 갈증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나는 케임브리지에서 1년간 체류하는 동안 마르크스 사상형성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그의 선구자와 동시대인들의 저작이나 그들과 관련된 2차자료를 수집하는 데 전념했다. 그러나 나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고서(古書)나 희귀본, 또는 당대 지지(紙誌)를 수집하기보다는 하버드대 중앙도서관인 와이드너(Widener)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관련자료를 복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와이드너 도서관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의 중앙도서관이다. 거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19세기 전반의 독일사상사 관계 자료가 적지 않게 소장돼 있었다. 나는 와이드너 도서관의 이곳 저곳을 쏘다니면서 자료를 찾고, 이를 부지런히 복사했다. 내가 당시 갓 유행하기 시작했던 복사기에 고마움을 느낀 것은,

나보다 수년 전 복사기가 없는 그곳 와이드너를 거쳐간 선배들이 필요한 책을 찾아 이를 일일이 요약하고 필사했으리라는데 생각이 미치면서다. 이는 마치 칼 마르크스가 한세기 반 전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대영박물관의 도서관에 출입하면서 필요한 책을 읽고 자료를 노트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껏 1년의 체류를 허가받은 내게 와이드너 도서관 1층과 정기간행물실에 비치된 복사기나 하버드 스퀘어 근처의 복사집은 철저히 숙련된 조교를 능가하는 훌륭한 조수였다.

나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청년헤겔파나 초기 마르크스와 관련된 3~4편의 논문을 집필하면서 1차자료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바로 이와 같은 자료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보쿰대에서의 연구를 지망했다. 보쿰대는 독일의 대학 가운데 비교적 늦게 설립된 대학이긴 하나 바로 이 대학의 철학과에 청년헤겔학파를 전공하는 교수가 철학사 강좌(Philosophiehistorische Forschungsstelle)를 맡고 있었기에 독일 전역에서 구할 수 있는 이 방면의 관련자료는 철학부 도서관에서 일거에 열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거기에다 학교에 인접해 있는 헤겔 아키브(Hegel-Archiv)가 수장하고 있는 도서들을 포함한다면 내 관심분야 연구에서 보쿰은 최적의 장소였다. 따라서 내 보쿰체재는 기본적으로 이들 자료의 정리와 복사에 집중됐다. 그러기에 1980년대 중반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은 당시 아버지의 독일체재 목적이 바로 복사작업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사실 당시의 나는 매일같이 도서관이나 인접한 헤겔 아키브에 가서 관련자료를 체크하고, 오후에는 필요한 자료를 대출해 우니센터(Unicenter)에 있는 특정 복사집에서 이를 복사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물론 나의 이같은 작업은 암스테르담의 국제사회사 연구소에서도 동일한 양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후반의 보쿰이나 암스테르담 체재시기에는 그 강도가 훨씬 뒤떨어진 것이었다. 물론 이 때에도 빠진 자료의 보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됐다.

이처럼 20여년에 걸친 내 자료수집은 내가 현재 집필하고 있는 《청년헤겔파의 지적 운동》의 저술이나 초기 마르크스의 연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서가를 장식하는 책으로서는 이렇다하게 내놓을 만한 장서가 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이미 앞의 자료수집 과정을 서술하면서 분명해졌지만 내 연구실에는 내가 손수 복사한 적지 않은 자료들이 있으나 이들은 학교근처의 복사집에서 우악스럽게 제본돼 연구실의 한 두면을 차지하고 있으니, 다른 이들이 보기에 그것은 단지 '자료'일 뿐, 책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기에 내 연구실은 그 어떤 희귀본이나 귀중본도, 그리고 초간본도 없는 단순한 자료의 창고에 머물 뿐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내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아니 그 복사본이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그리고 1~2매의 얇은 자료면 그것은 그것대로 그 중요도와 무관하게 책갈피 갈피에서 지난 20여년간 내 자신의 삶의 흔적을 더듬게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기에 나이탓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잉크가 손가락에 쓸려나오는 초기 제록스 복사본이나, 2중 3중으로 복사한 자료의 희미한 글자를 읽을 때는 턱없이 이 자료를 찾아서 복사하던 시기나 장소를 떠올리면서 자주 지난날의 추억 속을 헤매곤 한다.

그러나 서가에는 지난 30여년간 내 교직생활의 역정을 증거하는 또 다른 책들이 꽂혀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나는 미세한 전공으로 세분화된 오늘날의 신예 교수들과는 달리 신참, 또는 소장 교수로서 선배들이 맡기를 꺼리는 강의나, 필요에 의해 신설되는 강좌를 떠맡기도 했다. 따라서 내 관심과는 동떨어진 이런 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 모으고, 또 강의노트를 준비한 흔적들이 연구실의 책꽂이와 서랍 속의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다. 그런가 하면 학계와 문단에서 내가 맺은 지적 교유관계를 보여주는 헌사가 씌어진 증정본들, 그리고 때에 맞춰 전달되는 정기간행물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손때 묻은 이들 책도 언젠가는 도서관에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 좁은 연구실에서 '방출'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이순(耳順)의 경지를 맞는다는 것은 어쩌면 지난날의 이같은 인연을 훌훌 털고 스스로 가볍고 느린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